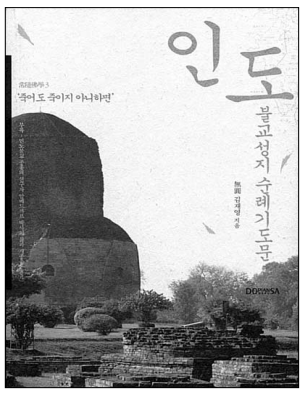


인도성지순례 가이드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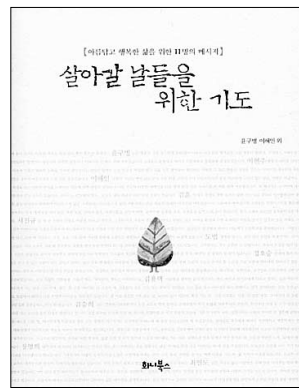
지금부터 두 달여 동안 인도불교성지순례가 가장 붐을 이루는 시기다. 많은 불자들이 이 기간에 붓다의 족적을 찾아인도를 찾는다. 인도 불교성지 순례에 나서기 전에 불자라면 꼭 한번은 읽어봐야 할 책이 나왔다.



‘인도 불교성지 순례기도문’
김재영 지음
도피안사 / 9천원

답은 것도 이런 의식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김 법사는 ‘죽어도 죽이지 아니하면 결코 죽지 아니하는 불멸의 담마(Dhamma)’를 우리들 앞에 명료하게 제시한다.

“나는 간디 박물관 3층 전시실의 한 화폭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냈다. ‘삼성동행도(三聖同行圖)’...붓다-예수-간디. 그들은 이미 붓다-예수-간디가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이름도 없을 것이다. 어떤 형상도 없을 것이다. 어떤 개념도 없을 것이다. 깨달음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비폭력도 없을 것이다...이름하고 구분하는 것은 중생의 어리석은 한갓 썩(腐)일 뿐이다. 순간에 젖어 헛것을 본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진실한 삶이 있을 뿐이다...다만 진실한 삶을 볼 때, 인류는 비로소 만인경성(萬人見性)의 길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기도’
윤구병 외 10인 지음
화니북스 / 8천5백원

물질과 풍요의 시대, 디지털과 속도의 시대, 그리고 이로 인한 개인주의의 팽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

가능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짚어보면 삶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갖는 일이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올바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나, 자연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가 갈 길은 함께 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깊이 통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정말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함



법정스님 책 5권 펴내

법정스님(김상사 회주)이 한꺼번에 다섯 권의 책을 내놓았다. <화엄경> <스승을 찾아서> <인연이야기> <참 좋은 이야기> <참 맑은 이야기> 등으로 모두 동쪽나라에서 출간됐다. <화엄경>은 80권 39품으로 된 전체 경전 가운데 화엄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는 보살문명품·정행품·심행품·심회향품·십지품·여래출현품·이세간품을 옮긴 것이다. <스승을 찾아서>는 선지식을 찾아가는 선재동자의 이야기가 담긴 화엄경의 입법계품만을 따로 엮어놓은 것이며, <인연이야기>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담은 본생담(本生譚)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대한 이야기인 비유(譬喻)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려 뽑은 것이다. 법정스님이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들을 담은 <참 좋은 이야기> <참 맑은 이야기>는 사랑과 평화, 봉사과 회생, 나누며 사는 삶에 대한 감동과 메시지가 그림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길 스님 등 지식인 11명의 삶 이야기

을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살아갈 날들을 위한 기도>을 권한다. 도법 스님, 이현주 목사, 이해인 수녀, 김용택 시인 등 스님이자 목회자이자 농부이자 시인인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 11명이 우리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한 책이다. "나만 살면 된다는 사고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아무리 고상한 품을 잡아도 인간다운 삶이 불

게 사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안됩니다." (도법스님의 글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해' 중)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번쯤은 뒤돌아보고 반추하며 또 한번의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는 새해 아침, 11명의 살아온 이야기와 살아갈 날들의 메시지는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은자 기자

기도문·명상시편·붓다행적 현장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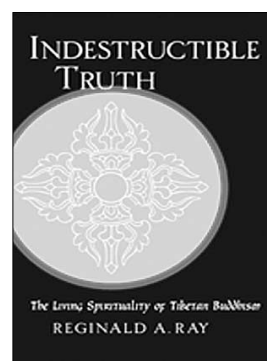
늘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표현했다. "인도로 가는 까닭은 첫째 기도하기 위함이며, 둘째 인도 풍토들을 만나기 위함이며, 셋째 인도불교의 부흥현장을 보기 위함이다"라는 김 법사의 말은 곧 인도를 찾는 우리의 자세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특히 김 법사는 이 책에서 세속적 관광의 수준을 크게 넘어선 문화적 관광의 수준을 스스로 비판하고, 붓다의 삶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인류적 고통과 과제들에 대한 구원의 출구를 발견하려는 치열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동시에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인도·인도 민중들의 끊임없는 만남과 순수한 우정을 통하여 초기 불교의 존엄한 역사적 상황을 재감하고, 이제 막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인도불교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염원을 전하고 있다. 부록으로 인도불교 부흥의 위대한 선구자 암베드카르(Dr. B. R. Ambedkar)박사의 전기글 국내 최초로 번역하여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1편 순례기도문에는 룸비니에서 히말라야까지 붓다의 행적을 찾아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23편의 기도문과 각각의 성지에 대한 역사적 경전적 배경에 대한 간략한 '현장 리포트'를 실었다. 2편 인도시편에는 인도 문화·인도 민중들과의 진솔한 만남과 대화를 소재로 한 10편의 명상 시편과 이해를 돕기 위한 '명상 노트'를 담았다. 부록으로 '암베드카르 박사의 삶과 개종 운동'과 현장에서 법회를 열수 있도록 '순례법회 독송편'도 실었다. 이 책은 인도로 가는 순례자들에게는 기도를 통해 살아 숨쉬는 붓다를 만나게 하고, 인도를 그리워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불자들에게는 이미 깨달아 있는 그들의 영성(靈性)을 흔들여 일깨워줄 작은 등불이 될 것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nia.com



불멸의 진리

<불멸의 진리(Indestructible Truth-The living spirituality of Tibetan Buddhism)>는 이제까지 출간된 티베트 불교 안내서 가운데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동시에 접근하기 쉬운 책이다. 저자 레지널 레이(Reginald A. Ray)는 복잡하고 난해한 가르침과 수행법을 비전문 용어로 개인적인 일화와 실천적인 해설을 곁들여 요점을 설명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이 책은 또한 티베트 전통불교의 원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대 서구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보여준다. 이 책에서 티베트 불교는 단순한 외래 종교로서가 아니라, 현대문명에 심오한 충격을 가져다주는 인간주의적 영성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책은 아울러 영적 생활을 위한 명상과 실천에 주안점을 두고, 카구파(Kagyu)와 니망파(Ningma)의 가르침에 따른 명상 수행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미 삼발라출판사.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감산자전	감산 스님	역시아문
2	서장공부	김 태 완	역시아문
3	화	틱 닛 한	명진출판사
4	이뤄교	성철 스님	김 영 사
5	무심	경허 스님	고 요 아 쥘
6	화엄경	법정 스님	동 쪽 나 라
7	역사속의 한국불교	이 이 화	역사비평사
8	한영불교사전	서광 스님	불광출판부
9	왕초보 불교박사되다	일지 스님	민 족 사
10	아비담마길라잡이	각목·대법 스님	초기불연연구원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새로나온 책

불교와의 만남

불교사를 두루 살피고, 삼법인, 사성제, 오온설, 12처설 등 근본 교설과 연기론과 실상론, 선(禪)등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경기도 수원 대승원 주지 수산스님이 집필했다. (마하야나, 9천 5백원)

‘불교와의 만남’

불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불교교리와 핵심 사상을 담은 불교 입문서다. 불교 발생 이전의 인도 상황에서부터 싯달타 태자의 탄생, 붓다의 깨달음과 입멸, 불교의 근본분열, 부파불교시대, 대승불교의 발달 등 불교사를 두루 살피고, 삼법인, 사성제, 오온설, 12처설 등 근본 교설과 연기론과 실상론, 선(禪)등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경기도 수원 대승원 주지 수산스님이 집필했다. (마하야나, 9천 5백원)

‘달을 삼킨 개구리’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화두이다. 이러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비유로 풀어 쓴 책이 <달을 삼킨 개구리>다. 교도소, 군부대 등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 온 혜범스님이 펴냈다. 스님은 현재 강원도 원주 현계산 송정암에서 수행 정진중이다. (북갈림, 8천원)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불교·가톨릭·기독교·원불교 등의 복지현황을 살핀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가 출간됐다. 1부에서는 현대 사회복지 모델과 의미를 살펴보고, 2부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불교사회복지의 이념’을 쓴 종교사회복지포럼 권경인 회장은 “불교계 사회복지 활동은 8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그동안 물질·인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시설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지사, 1만4천원)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불교·가톨릭·기독교·원불교 등의 복지현황을 살핀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가 출간됐다. 1부에서는 현대 사회복지 모델과 의미를 살펴보고, 2부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불교사회복지의 이념’을 쓴 종교사회복지포럼 권경인 회장은 “불교계 사회복지 활동은 8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그동안 물질·인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시설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지사, 1만4천원)

‘세상을 자유롭게 사는 여자’

현재 미국 뉴욕에서 불교 방송인으로, 전화회사 대표로 한인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김자원 씨의 에세이집이다. 1970년대 초 간호사로 독일에 갔다가 사랑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하게 되면서 겪었던 슬한 인생 역정을 솔직담백하게 담았다. 특히 힘들었던 미국 생활 중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교사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부분이 흥미롭다. (우리출판사, 9천원)

‘세상을 자유롭게 사는 여자’

현재 미국 뉴욕에서 불교 방송인으로, 전화회사 대표로 한인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김자원 씨의 에세이집이다. 1970년대 초 간호사로 독일에 갔다가 사랑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하게 되면서 겪었던 슬한 인생 역정을 솔직담백하게 담았다. 특히 힘들었던 미국 생활 중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교사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부분이 흥미롭다. (우리출판사, 9천원)